

## 역대 최고 사전투표 열기... 최종 판세 영향 '촉각'

전국 31.28%... 21대比 4.59%p ↑  
전남 41% '1위' 광주 38% '3위'  
"지역민들 정치성향 표출" 관측  
본선 투표율로 이어질까 '관심'

4·10 총선이 이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주말 치러진 사전투표에서 전남 지역 투표율이 전국 1위는 물론, 역대 총선 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국적으로는 '호고영저' 현상이 뚜렷했으며 뜨거운 사전투표 열기가 본선까지 이어질지, 또 각 정당과 후보의 유불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6시부터 6일 오후 6시까지 제22대 총선 사전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국 평균 사전투표율은 31.28%로, 지난 21대 총선 26.69%보다 4.59%p 상승하며 역대 총선 사전투표율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모든 선거 중 가장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20대 대선 사전투표율(36.93%)에 비해 5.65%p 낮은 수준으로, 대선급 사전투표율이라는 평가다.

이번 사전투표에서 광주는 96곳의 사전투표소에서 전체 선거인 119만9920명 중 45만5962명이 투표를 마쳐 38.00%의 투표율을 보였다. 지난 21대 총선(32.18%)보다 5.82%p 상승했으며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광주에서 최고 투표율을 보인 곳은 동구로 41.35%를 기록했다.

전남에는 298곳의 사전투표소가 설치됐으며, 전체 선거인수 156만5232명 중 64만4774명이 사전투표를 마쳐 41.19%를 기록,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1대 총선(35.77%)보다는 5.42%p 상승했다.

전남은 지난 2017년 제19대 대선에서 세종시(34.48%)에 이어 두 번째 높은 34.04%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역대 모든 사전투표에서 전국 1위를 지켜왔다.

전남에서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신안군으로 54.81%를 기록했으며 곡성

군 50.51%, 장성군 50.04% 등이 뒤를 이었다. 22개 시·군 중 사전투표율 40%를 넘긴 곳은 18곳에 달했다.

전국적으로는 호남 사전투표율이 영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호고영저'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에 호남을 텃밭으로 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호남의 높은 사전투표율을 두고 고무적이라는 반응이다. 정권심판론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지지층을 중심으로 결집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전투표에 미온적이었던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사전투표율이 이전 총선 대비 높아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보수층의 결집에 중도층의 호응이 가세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또 최근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는 등 호남 표심이 민주당만을 향했다고만 볼 수 없다는 분석이다.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이 기록되며 이와 같은 열기가 10일 치러지는 본선거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경쟁이 치열할 수록 투표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단 사전투표라는 제도 자체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나며 제도가 완전히 정착됐다고 볼 수 있다. 역대 사전투표율이 계속 해서 상승하는 것도 제도 정착과 관계가 있다"면서 "또 일반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선거일 수록 관심도가 증가하며 투표율도 올라간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광주·전남의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은 '좌고우면' 할 이유가 없는 지역민들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다. 이미 마음 속에서 결정을 했으니 본투표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조직 동원이 활성화돼 있는 부분도 강하다. 기본적으로 높은 정치적 관심도와 함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네트워크가 발달된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관련기사 2·3·4면

곽지혜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 5일 광주 북구 용봉동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 주말·휴일 지지층 표심잡기 '막판 총력전'



민주 "광주·전남 18석 굳히기"  
국힘·진보·정의 등 "기적 1석"

4·10 총선을 3일 앞둔 7일 광주·전남 지역 각 정당 후보들은 선거일 전 마지막 휴일을 맞아 총력 유세전을 펼쳤다. 이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교회, 야구장, 등산로 등 인파가 몰린 지역구 곳곳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결과 전남·전북·광주 등 호남 지역이 전국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지역 출마자들은 본 선거를 앞두

고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동남갑 후보와 조인철 서구갑 후보, 정준호 북구갑 후보, 전진숙 북구를 후보, 박군택 광산갑 후보는 이날 오전 교회와 성당 등 종교 시설을 찾아 선거운동을 벌였다. 이들은 각 지역구의 책임자임을 내세우며 단사를 앞으로 다가온 본선거 참여를 독려했다.

또 같은 당 안도걸 동남을 후보는 무등산 아래 중심사 일대에서, 양부남 서구를 후보는 풍암체육공원 거리에서 각각 등산객과 운동하는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했다.

민형배 광산을 후보는 첨단체육공원에서 열린 족구대회를 방문해 정권심판론에 힘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후보들은 "지난 5·6일 진행된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이는 정권 심판을 향한 시민들의 목소

리라고 생각하고, 남은 본선거에서도 높은 투표율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광주 시민들이 '지민비민(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도 민주당)', 소위 '몰빵론' 캠페인에 함께해 지역구는 물론 비례 역시 더불어민주당 연합을 지지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에서 최소 1석을 목표로 하는 국민의힘 후보들도 이날 공원과 종교시설 등을 방문해 "광주의 민주당 일당독점 구도를 깨뜨려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은식 동남을 후보는 중심사 입구에서 집중 유세를 했고, 하현식 서구갑 후보는 동천동 광주전년 벚꽃길에서 상춘객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

김윤 서구를 후보는 풍암호수공원에서, 김정명 북구갑 후보는 군왕봉체육공원을 찾아 산책을 나온 유권자들의 손을 잡았다.

▶ 2면에 계속  
김은지 기자

## 상·하수도 비굴착

• 국내 최초 상·하수도 공용 전체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508호 T.S.L공법』

• 하수도 부분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426호 O.P.L공법』

### 굴착교체의 문제점

하수관 보수 공사시 일반적으로 굴착 후 신관교체를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소음이나 교통체증 등 문제가 발생하며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



### 비굴착 보수공법의 특징

- 굴착을 수반하는 하수관 보수공사에 비해 공사비 저렴
- 투입인원! 인건비 절감
- 하수관 내에 형성된 현장 경화관의 수명을 향후 50년으로 전망
- 단순한 시공 공정으로 안전사고 감소
- 터미널관과 접촉으로 인한 위험성 해소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글로벌기업 (유)탐환경건설·(주)탐앤제이”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겠습니다.